

# 남성 직장인의 은퇴계획유형과 경제적 준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Types of Attitude toward Retirement Plan and Financial Planning for  
Post-retirement Life among Salary Men.

우석대학교 실버복지학과  
교 수 광 인 숙  
계명대학교 소비자정보학과  
교 수 홍 성 희  
중앙대학교 주거학과  
교 수 이 경 희

Dept. of Silver Welfare, Woosuk University

*Professor : Kwak, In Suk*

Dept. of Consumer Information Science, Keimyung University

*Professor : Hong, Sung Hee*

Dept. of Housing Studies, Chung Ang University

*Professor : Rhee, Kyung Hee*

## 〈 목 차 〉

- |            |             |
|------------|-------------|
| I. 서론      | IV. 분석 및 결과 |
| II. 이론적 배경 | V. 요약 및 결론  |
| III. 연구방법  | 참고문헌        |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overall levels of the middle aged salary men's attitudes toward retirement plan and financial planning for post-retirement life, and to understand the influencing variables such as personal, socio-economical and job characteristics.

The data were collected from the 445 middle aged male salary workers through the

\* 주저자, 교신저자 : 광인숙 (kwak1526@hanmail.net)

structured questionnaires and were analysed by SPSS program.

The major finding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 the salary men had different level of perception of retirement issues and retirement planning for post-retirement life.

Second, according to the attitudes for retirement planning types, the affecting variables were different. Third, the results of the analysis showed that personal characteristics, job characteristics, economical background and the perception of family care were affecting the level of financial planning for retirement. And the positive attitude was the most crucial variable which affected the financial planning for retirement.

**Key Words :** 은퇴계획유형(type of attitude toward retirement plan), 경제적준비(financial planning)

## I. 서 론

2006년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전체인구의 9.5%이며, 오는 2019년에는 14.4%에 달하여 고령사회(aged society)로 진입할 것으로 추계되고 있다. 이 추계에 의하면 노인인구의 비중이 7%인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이후 14%이상인 고령사회로 되기까지는 19년이 걸리는 셈이다. 세계적으로 고령화 사회에 빨리 진입했던 프랑스의 경우 1865년에 고령화 사회가 된 이후 115년이 지난 1980년에 이르러 고령사회로 진입했으며, 영국의 경우는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사회로 변화되는데 85년, 미국은 68년이 걸렸음에 비추어 보면 우리나라의 노인인구의 증가 속도는 매우 빠르다(박신영, 2007).

이러한 빠른 변화 속에서 우리나라의 많은 노인들은 대부분 심신의 노화와 함께 사회적 여러 변화와 단절 등을 겪으며 대책 없는 노후생활로 접어드는 것이 현실이다. 최근 한 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 노인들 중 은퇴 준비를 하는 노인들의 비율은 33.2%로 대부분 준비 없이 불안한 노후를 맞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동아일보, 2007년 4월 9일). 더구나 수명

연장으로 노후는 갈수록 길어지고 있어 ‘준비된 노후’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되고 있다.

노년기가 길어짐에 따라 노년의 삶이 단순한 생존과 생활의 문제가 아닌 삶의 질적 향상을 요구하는 주요 관심사로 부각되고 있다. 노년생활을 미리 준비하고 노년기의 변화에 대처하는 노력은 노후에 대한 적응력을 높게 하여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건강한 노년을 보내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노후에는 사회경제적 역할이 감소됨에 따른 사회적 고립과 심리적 소외감, 수입 감소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건강 악화 등의 문제가 발생되는데, 이 중 경제적 문제는 생활을 위해 가장 기본적으로 해결되어야 하는 문제인 동시에 건강 등 다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므로 특히 중요한 것으로 인식된다(손상희, 2000). 노년기의 경제적 문제가 가장 부각되는 이유는 노년기에는 노동시장으로부터 이탈하게 되고, 이는 곧 근로소득의 격감을 가져오게 되기 때문이다. 경제적 측면의 노후대책은 노년기에 들어서기 이전에 미리 계획하고 달성되어야 경제적으로 안정된 노후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

노인의 경제적 복지수준이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아

직 연금이나 노인소득보장 등 사회보장제도가 미비하며, 더욱이 자녀의 노인부양이란 전통적 보호체계도 매우 약해져가고 있다(성영애·양세정, 1997). 따라서 각 가계는 은퇴 후의 경제문제를 스스로 계획하고 해결해야 하며, 개별적이고 독립적인 은퇴준비에 대한 비중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우리사회의 주요한 구성원으로 자리 잡고 있는 직장인들은 외환 위기 이후 급격히 변화한 노동시장과 기업상황으로 인해 평생직장 내지 정년연령의 개념이 무너짐에 따라 은퇴와 은퇴 계획에 대한 인식을 바꾸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비자발적인 조기퇴직이 권장되거나 일반화되면서 조기은퇴의 압력에 직면하고 있으며, 은퇴 이후의 생활에 대한 준거도 마련하지 못한 상태에서 부양자 역할의 상실 및 지위의 변화를 경험하면서 노후생활에 적응해야 한다.

이와 같이 최근 우리나라의 인구 고령화 속도와 수명의 연장, 직장인의 조기퇴직현상 등의 사회적 현상을 통해 직장인들이 은퇴 전에 미리 은퇴계획을 해야 할 필요성이 점차 높아지며, 은퇴 후 생활에 대비하기 위한 경제적 준비가 필수적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직장인들이 은퇴 후 맞게 되는 노후의 삶에 대하여 어떻게 인식하고 어떠한 계획과 준비를 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은 이들의 생애 과정 중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은퇴를 전후한 과정에서의 인식과 실태를 파악할 수 있고 나아가 이들에게 은퇴계획과 경제적 준비의 필요성을 인식시킬 수 있는 의미를 갖는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남성 직장인들이 인식하고 있는 은퇴 후 생활문제에 대한 인지여부와 계획여부를 유형화하고 각 유형에 따라 은퇴후 경제적 준비의 특성을 파악해 보고자 한다. 특히 은퇴 후 경제적 준비를 은퇴

후 경제생활에 대한 예상과 이를 바탕으로 한 경제계획 수립, 계획을 실천에 옮기는 은퇴대비실천의 단계로 파악함으로써 경제적 준비를 해나가는 전 과정에 접근하는데 의의를 두었다. 구체적으로는 은퇴 후 경제적 수준에 대해 어떻게 예상과 전망을 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소득과 지출, 부채 및 자산관리, 상속 등에 대해 어느 정도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실제로 계획을 어느 정도 실천에 옮기고 있는가를 파악하고자 한다.

우리나라 남성 직장인들의 사회경제적인 지위와 생활 경험에 따른 은퇴계획유형과 은퇴 후를 대비한 경제적 준비의 영향 요인을 밝히는 본 연구는 직장인 개인에게 자신의 은퇴계획의 수준을 평가하고 은퇴계획을 수립하는데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기업에서는 사원들이 필요로 하는 교육 및 지원 프로그램의 일부로서 은퇴계획 및 은퇴준비교육 자료의 토대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는 직장인의 은퇴 후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한 노후소득보장정책이나 노인 대상의 노인복지서비스와 연금제도 등 제도적 지원의 방향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II. 이론적 배경

### 1. 은퇴계획유형

은퇴가 개인에게 부여하는 의미와 영향은 대조적인 두 가지로 제기되고 있다. 우선 무거운 사회적 책임과 역할에서 벗어나서 자유스러워지며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도전의 기회를 제공해준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사건일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은 은퇴를 무거운 책임과 역할에서 벗어난 것으로 느끼며, 새로운 활동과 목표를 추구할 수 있는 좋은 기회

로 생각하고, 취미생활이나 새로운 역할에서 기쁨을 찾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Boss, et al., 1991). 반면 은퇴는 개인에게 심리·사회적인 측면에서 다양한 스트레스를 몰고 오는 위기일 수도 있다. 그 이유는 직업생활을 통해 수행했던 모든 심리·사회적인 기능들을 상실하게 되며, 수입의 감소로 인하여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할 수 있기 때문이다(Miller, 1965; 윤진, 1985). 더 나아가 이러한 요인들이 생활만족도와 행복감 내지는 사기를 떨어뜨리기도 한다. 이와 같이 은퇴는 현실적으로 사회경제적 지위의 저하와 역할 상실 등의 문제를 파생시키며 이 시기에 은퇴자들은 노년기에 진입하면서 노화와 건강상태의 저하 등 모든 생활에서 문제를 경험하게 된다.

은퇴 이후의 적응양상은 개인에 따라 상당히 다른 것으로 알려져 있다(김애순 등, 1995). 즉, 많은 사람들은 은퇴를 직업역할과 책임에서 벗어나 만족하는 삶을 사는 (Bosse, Aldwin, Levenson & Workman-Daniels, 1991) 반면 은퇴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Parnes, 1981), 신체 건강이 악화되어 의료시설 이용빈도가 증가한다(Boaz & Muller, 1989). 이와 같은 개인차는 은퇴가 누구에게나 심각한 심리·사회적인 위기를 초래하는 보편적인 사건이라기보다는 개인이 은퇴를 어떻게 준비하고 또 은퇴 이후에 적응해 나가는가에 따라 은퇴 이후의 생활이 달라진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따라서 은퇴 이후의 생활 적응과 생활의 질을 위해 은퇴 이전부터 준비가 필요하다.

그러나 은퇴와 노후를 대비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천은 미약한 것으로 나타난다. 즉 중년기의 노후준비도를 살펴본 본 연구(이화자 외, 1996)에 따르면, 노후에 스스로 책임있고 독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노후준비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고 있으나 실제로 노후준비방법에 있어서는 폭넓은 준비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년기 남성들은 노후생활에서 신체적 건강이 가장 문제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노후생활에서 건강하게 사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였으나, 대부분이 실제로는 노후의 건강을 위해 특별한 준비를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김미경, 1992). 즉, 은퇴준비와 계획에 대한 필요성은 인식하면서도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방법을 모르거나 자신의 은퇴 후 상황을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구체적인 은퇴 계획을 시도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은퇴 후 생활에 대한 예측의 어려움과 막연한 불안감으로 인해 문제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구체적인 계획 수립으로는 이어지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자원의 부족으로 인해 노후 생활문제를 높게 인지하면서도 노후계획의 수립정도는 낮은 현상이 나타나기도 한다(홍성희 등, 1997).

따라서 은퇴 후 생활에 대한 문제 인식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계획수립은 별개의 차원으로 인지되는 것으로 보이며, 개인의 특성과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조합되는 유형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더 나아가 이러한 인식과 계획의 유형은 구체적인 경제적 준비의 실행 수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 2. 은퇴 후 경제적 준비

경제적 자원은 은퇴 후 생활에서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나는데, Atchley(1977)는 경제적 자원의 감소가 은퇴 후의 행동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하였다. 또 Watson(1980)은 경제적 수준이 높은 노인들이 높은 생활만족도와 자기 이미지를 보이는데, 특히 노인이 스스로 지각하는 자신의 경제적 상태의 수준

이 강력한 영향을 미쳤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경제적 자원은 노후의 다른 모든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가장 중요한 측면이라 할 수 있다.

은퇴 후에는 사회 경제적인 역할이 감소됨으로써 사회 심리적 고립과 소외감, 수입 감소 및 경제적 의존문제 등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 중 특히 중요하게 인식되는 것이 경제적 문제이다(홍성희 외, 1998). 실제로 노인가정의 경제적 실태 조사 결과에 의하면 노인가정은 비노인가정에 비해 상대적으로 총 소득, 경상소득, 근로소득 및 총 지출액이 모두 낮았으며 유동자산과 실물자산을 포함한 총 자산액도 낮아 노인가정이 소득, 지출 및 자산의 모든 측면에서 경제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문숙재 외, 1996).

더구나 최근 우리나라의 고령화가 빠른 속도로 진전되면서 기대여명이 연장됨에 따라 은퇴 이후 소득보장과 소비수준 유지와 같은 경제적 문제가 앞으로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므로 소득수준이 높은 중장년기 동안 은퇴 이후를 대비해 소득 중 일부를 저축해야 하는데, 노후생활에 대한 예측능력과 정보의 부족으로 노후소득을 계획하고 준비하지 못하거나, 노후의 적정소비수준을 예측하더라도 충분한 저축을 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또한 고령화가 진전되면서 공적연금기금의 고갈 위험성이 커지며, 노후자산의 투자수익율이 불안정하여 안정적인 노후수입을 보장하기 어렵게 되는 투자위험요인이 있으며 인플레이션의 위험으로 물가상승이 노후자산의 가치를 감소시킬 위험이 있다.

이러한 문제에 대처하기 위하여 중년기 가구에서도 경제계획을 가장 중요한 노후 준비로 들고 있다(이기영 외, 1995). 경제계획과 준비가 가장 중요한 이유로서 경제적 상태는 개인의 물적 자원으로서 노후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는 반면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문제(통계청, 2004; 이정숙 등, 2005)이기 때문이다. 또, 경제적 문제는 노년기에 당면해서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에 노후에 원하는 생활수준을 유지하고 경제적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을 만큼 노년기 이전에 노후경제생활을 계획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노후대비 재정계획을 당면과제로 인식하고 있는 사람이 90%를 차지해 노후준비에 대한 목표설정정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김은정, 1993), 노후 경제적 준비를 현재 연령보다 앞선 시기에 시작해야 하는 것으로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었지만(이지은, 2000), 목표를 실행하고 계획을 실천하는 실천력은 매우 떨어진다. 즉, 노후준비를 위한 실제적 자원평가를 해 보았다는 사람은 40%를 약간 넘고 정보 수집을 한 경우도 30%에 불과해 중년기가계가 노후준비를 위한 구체적인 활동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나타난다(김은정, 1993). 또,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5)의 조사결과에서는 노후를 위해 경제적인 준비를 한 노인의 비율은 28.3%에 불과하며, 이 중에서도 15.3%는 준비가 미비한 것으로 보고하였다. 한편, 중년층을 대상으로 한 이지은(2000)의 연구에서는 40대 직장인 중 노후 경제생활계획을 하고 있지 않은 비율이 하고 있는 비율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은기수(2001)의 도시가계조사와 사회통계조사를 이용한 연구에서도 비노인의 34%만 노후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중년층의 노후 경제준비율이 높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배문조 등(2004)의 연구에서는 소득이 높을수록 경제적 노후준비를 하는 것으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노후 경제적 준비가 필요한 취약계층에서는 실제로 노후준비를 하고 있지 못하는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김정석(2001)의 연구 역시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노후 경제생

활에 대한 준비정도도 높았으며, 월평균 가구 수입이 높고 주택을 소유한 층일수록 준비정도가 높았음을 밝히고 있다. 홍성희 등(2006)의 연구에서도 주관적으로 인지하는 노후 경제적 준비수준은 자신의 경제적 능력이 높다고 생각하고 자산이 많고 부채가 적을수록 높게 나타났다.

그러므로 은퇴 전부터 은퇴 후를 대비한 경제적 준비를 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필요성을 느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천은 미약함을 알 수 있다. 또 경제적 준비를 위해서는 소득과 자산, 주택소유, 주관적인 경제적 능력, 교육수준 등의 사회경제적 요인이 뒷받침되어야 하는 것으로 보인다.

### 3. 관련변수

#### 1) 연령

연령에 따라 김미경(1992)의 연구에서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노후대비 계획을 세우는 사람이 많다는 결과를 보였으며, 홍성희 등(2006)의 연구에서도 연령이 많을수록 노후 경제적 준비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연령이 많아짐에 따라 노후를 대비한 경제적 준비의 필요성이 커지므로 구체적인 준비와 실천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2) 교육수준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노후 경제생활에 대한 준비정도가 높다는 연구(McPherson & Guppy, 1979; 김정석, 2001)가 있는 반면 여성 직장인의 경우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노후를 대비한 저축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홍성희 등, 2006). 임장순(1990)의 연구에서는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자녀에게 노후를 의존하지 않기 위해 경제적 계획을 세우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성별에 따라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교육수준은 노후계획에 대한 의식과 실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 3) 건강상태

주관적인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노후 경제생활에 대한 준비정도가 높다(김정석, 2001). 이승아(1998)의 연구에서도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퇴직 후 전반적인 생활에 대한 계획성이 높게 나타났다. 건강상태는 개인의 신체적 독립상태 및 일상생활을 위한 기본적인 인적 자원으로서 은퇴 준비와 실천에도 중요한 자원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 4) 자존감

은퇴 이전에 가졌던 일과 직업으로 인한 자존감에 따라 은퇴 후 생활계획이 다르게 나타난다(George, 1980). 홍성희 등(2006)의 연구에서도 자존감이 높은 남성봉급생활자가 노후대비 저축을 하는 경향을 보여 자존감은 노후대비 경제적 준비수준에 영향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 5) 노후부양의식

노후부양의식과 경제적 준비의 관련성을 다룬 연구는 찾아볼 수 없어 노후부양의식의 변화 실태를 통해 그 관련성을 예측해보면, 김정석(2001)의 연구에서 중년층은 전통적 노후부양태도로 보여지는 자녀부양책임에서 멀어지고 있으며, 그 대체물로 자신의 책임을 강조하는 태도들이 형성되고 있는 변화를 보였다. 한편 30세 이상의 가구주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저축추진중앙위원회(1995)의 조사에 따르면, 조사대상자의 95.3%가 노후생활 부양은 본인 자신의 책임이라고 응답하였고, 85.6%가 자신의 노후생활에 관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후생활에 대비하여 경제적 준비가 전혀 없다는 응답이 31.0%로 나타났다. 이러

한 결과로 볼 때 자녀의 부모부양의식이 희박해지며 노년기가 길어지는 것과 동시에 은퇴 후 기간이 연장되면서 은퇴 후 자기부양을 위한 경제적 준비에 대한 인식과 실천이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 6) 은퇴계획유형

본 연구에서 은퇴계획유형은 은퇴 후 생활문제의 인지 여부와 생활계획의 여부를 조합한 네 가지 유형으로 구성되는데, 이와 같이 은퇴계획을 유형화시켜 분석한 선행연구가 없어 은퇴계획유형이 경제적 준비에 미치는 영향력을 확인할 수 없으나, 은퇴 후를 대비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인식과 실천에 관한 연구(이화자 외, 1996)와 중년기 남성들이 예상하는 노후생활문제와 이를 위한 준비(김미경, 1992), 노후생활문제인지와 노후계획수립 정도(홍성희 등, 1997)에 관한 연구에서 은퇴 후 생활문제는 많을 것으로 인식하나 이를 대비하기 위한 실천과 계획은 미약한 수준으로 나타난다. 즉, 은퇴 후 생활문제의 심각성과 은퇴계획의 필요성은 인식하면서도 현재의 경제적 자원이 부족하거나 자신의 은퇴 후 경제적 상황을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구체적인 경제적 준비를 시도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 7) 가계소득 및 자산

소득은 생활수준 및 생활양식, 사회적·경제적 지위를 규정하는 요인으로서 은퇴 후 생활계획에 영향을 미친다(서병숙, 1996). 배문조·전귀연(2004)의 연구에서는 소득이 높을수록 경제적 은퇴준비를 잘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신하연(1997)의 연구에서도 중년기 소비자의 소득수준과 순자산이 경제적 노후대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정석(2001)의 연구에서는 월평균 가구 수입이 높고 주택을 소유한 층일수록, 즉 주

택자산이 있을 때 노후 경제적 준비정도가 높았다. 이지은(2000)의 연구에서도 월평균소득과 총자산이 노후 경제생활계획여부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중년층이 미래를 위해 더 구체적인 준비가 가능한 것으로 보였다. 이러한 결과들을 통해 소득과 자산이 어느 정도 충분해야 노후를 위한 경제적 준비와 실천의 가능성이 높아짐을 알 수 있다.

#### 8) 직업 및 직업만족도

직업은 직종과 지위에 따른 소득의 차이를 가져오는데, 퇴직 후 생활계획은 직종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여(McPherson & Guppy, 1979) 전문관리직이나 사무직 종사자가 생산직보다 퇴직 후 생활에 대비한 계획성이 높다는 연구 결과(Evans et al., 1985)가 있는 반면 직종에 따라 퇴직 후 생활계획에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연구(Barfield & Morgan, 1978)도 있다. 그러나 직업을 연금수혜직종과 비수혜직종으로 구분한 신하연(1997)의 연구에서는 공적 연금혜택을 받지 못하는 직업종사자의 노후준비저축액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직업은 연금혜택여부 뿐만 아니라 근로소득, 정년연령 등과 관련하여 광범위하게 노후 경제적 준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된다.

한편 이승아(1998)의 연구에서 직업만족도는 퇴직 후 생활계획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나타남으로써 중년기 직장남성의 퇴직 후 생활계획에는 직업특성변수가 상대적으로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였다.

#### 9) 현재 경제적 능력

이지은(2000)의 연구에서는 현재 가계경제에 대한 평가가 노후 경제생활계획여부에 영

향을 미쳤는데, 이는 객관적인 경제상태 뿐만 아니라 주관적인 경제력 인지도 노후 경제생활을 계획하는데 영향요인으로 작용함을 나타내준다.

#### 10) 은퇴태도

George(1980)의 사회적 스트레스모델에 의하면 은퇴태도는 은퇴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다. 홍성희 등(2006)의 연구에서는 직장인의 은퇴태도가 전반적인 은퇴계획에 가장 큰 직접효과를 미칠 뿐 아니라 매개변수로 은퇴계획에 간접효과를 보였던 결과(홍성희, 2007)를 통해 은퇴계획에 앞서 긍정적인 은퇴태도를 형성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이 입증되었다.

### III. 연구방법

#### 1. 연구문제

본 연구에서는 남성 직장인을 대상으로 은퇴 후의 생활문제에 대한 인지도부와 계획여부를 중심으로 유형화하고 각 유형에 따라 은퇴 후 경제적 준비 실태를 파악해 보고자 한다. 특히 은퇴 후 경제적 준비 실태를 세부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경제적 수준에 대해 어떻게 예상과 전망을 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소득과 지출, 부채 및 자산관리, 상속 등에 대해 어느 정도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실제로 어느 정도 실천에 옮기고 있는가를 구체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은퇴에 대비하여 경제적 준비가 이루어지는 과정에 초점을 맞추어 은퇴계획유형에 따른 은퇴 후 경제생활 예측, 경제계획, 노후대비저축액을 분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 남성 직장인들의 경제적 준비로서 은퇴 후 경제생활예측, 경제계획, 노후대비저축액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2 : 남성 직장인의 은퇴계획유형은 어떠한가,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은퇴계획유형에 따른 은퇴 후 경제적 준비에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3 : 남성 직장인의 은퇴 후 경제생활예측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가?

연구문제 4 : 남성 직장인의 은퇴 후 경제계획의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가?

연구문제 5 : 남성 직장인의 노후대비저축액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가?

#### 2. 조사도구의 구성

조사도구는 설문지를 사용하였으며, 종속변수로는 은퇴이후를 대비하여 경제적 준비로서 은퇴 후 경제생활을 예측하고 경제계획을 하며, 계획을 실천하고 있는 정도를 조사하였다. 경제적 준비와 관련하여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남성 직장인의 배경변인은 크게 사회인구학적 특성, 경제적 특성, 직업특성으로 구성하였다. 사회인구학적 특성은 연령, 교육수준, 건강상태, 자존감, 노후부양의식, 은퇴계획유형 등을, 경제적 특성은 가계소득 및 순자산, 현재의 경제적 능력을 포함하였다. 직업 특성은 직업과 직업만족도, 긍정적 은퇴태도, 부정적 은퇴태도를 선정하였다. 은퇴 후의 경제적 준비 중 은퇴 후 경제생활예측을 파악하기 위한 변수는 은퇴 후 생활전망, 은퇴 후 예상소득, 예상노후자금의 3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은퇴 후 경제계획의 수준을 파악하기 위한 변수는 은퇴 후 소득확보, 생활비지출, 자산보유·증식, 부채감소, 상속·병원비 등의 5개 문항에 대한 계획정도를 구성하였다. 또, 은퇴



〈표 1〉 변수의 정의와 측정방법

변수	정의 및 측정방법
은퇴후 경제적 준비 은퇴후 경제생활 예측(3) 은퇴후 생활전망	은퇴이후의 전반적인 생활수준에 대한 전망 1=매우 나빠질 것이다 3=현재와 비슷할 것이다 5=매우 좋아질 것이다
은퇴후 예상소득(만원) 예상노후자금(천만원)	은퇴이후의 예상되는 월소득 은퇴이후의 노후생활에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는 자금
은퇴후 경제계획(5)	은퇴 후를 대비한 경제생활에 대한 계획의 정도 (은퇴후 소득확보, 생활비지출, 자산보유·증식, 부채감소, 상속·병원비) 1=전혀 계획 안됨 5=완벽한 계획
노후대비저축액(만원/월)	은퇴이후를 대비하기 위한 실천으로서 노후대비저축 및 투자액
배경변인 사회인구학적 특성	
연령	만 연령(세)
교육수준	교육연수
건강상태	1=아주 좋지 않다 5=아주 건강하다
자존감(3)	자신의 존재와 능력에 대한 인식과 만족감 1=전혀 그렇지 않다 5=매우 그렇다
노후부양의식	노후에 대한 부양책임 1=본인 0=국가, 사회
은퇴계획유형	은퇴이후의 생활에 대한 걱정과 계획여부 1=걱정 X 계획 X 2=걱정 O 계획 X 3=걱정 X 계획 O 4=걱정 O 계획 O
경제적 특성	
가계총소득	월평균 가계소득(만원)
순자산	현재 가계 금융자산+실물자산-부채(천만원)
현재 경제적 능력	가구의 현재 경제적 능력에 대한 주관적인 인식 1=하 3=중 5=상
직업특성	
직업(판매직·기술직)	
사무직	1=사무직 0=판매직·기술직, 관리직·전문직
관리직·전문직	1=관리직·전문직 0=판매직·기술직 및 사무직
직업만족도(5)	직업 및 직장환경에 대해 만족하는 정도 1=전혀 그렇지 않다 5=매우 그렇다
긍정적 은퇴태도(3)	미래 은퇴에 대한 긍정적 인식의 정도 1=전혀 그렇지 않다 5=매우 그렇다
부정적 은퇴태도(2)	미래 은퇴에 대한 부정적 인식의 정도 1=전혀 그렇지 않다 5=매우 그렇다

후를 대비한 경제실천수준을 파악하기 위하여 노후대비저축액을 측정하였다. 경제계획의 문항은 선행연구(전길양 등, 2000; 박경숙, 2003; 홍성희 등, 1998; 홍성희, 2000; 정경희, 2000; 이정숙 등, 2005)를 참고로 일부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연구에서 사용된 변수의 정의 및 측정방법은 <표 1>과 같다.

### 3. 조사방법

본 연구에서는 남성 직장인의 은퇴계획유형과 은퇴후 경제적 준비에 관련된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설문지를 이용한 자기기입방식으로 실증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대상은 서울특별시 중심으로 한 수도권지역에 거주하며 일반 기업체에 근무하는 남성 직장인으로 외환위기 이후 정년이 보장되지 않고, 조기 퇴직하는 경향이 있어 퇴직에 대비해 은퇴계획을 필요로 하는 집단일 것으로 예상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정년이 보장되는 공무원 및 교원은 조사대상에서 제외시켰는데 이들은 다른 직장인보다 은퇴에 대한 문제점과 필요성을 심각하게 느끼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조사지역은 수도권으로 제한하였는데 이는 도시의 규모에 따른 직업적 기회와 배경에 의한 차이를 제외한 직장인의 보편적인 은퇴계획과 경제적 준비실태를 파악하기 위함이다. 조사 대상자를 남성으로 한정된 것은 가정에서 남성이 일차적인 가족부양자의 역할을 맡고 있기 때문에 은퇴계획의 필요성을 여성보다 더 인식할 것이기 때문이다. 2005년 6월 5일부터 15일 까지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설문지 문항을 일부 수정 보완하였다. 2005년 7월부터 9월까지 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총 700부의 설문지를 배부하여 회수한 550부 중 부실응답된 설문지를 제외한 445부의 표본을 최종분석에 사용하였다.

### 4. 분석방법

조사된 자료의 분석은 PC SPSS Program (Ver 12.1)을 이용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은퇴후 경제생활예측, 경제계획, 노후대비저축 등 전반적인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빈도, 백분율, 평균을 산출하였다. 은퇴후 경제생활예측, 경제계획, 노후대비저축액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독립변수 중 가계소득 및 순자산 등은 평균과 표준편차의 차이가 크므로 이로 인한 극단치의 영향을 감소시키기 위해 회귀분석 시 로그값을 취하였다. 중회귀분석을 실시하기 전에 독립변수 간의 상관계수와 VIF계수를 검토하였다.

## IV. 분석 및 결과

###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은 <표 2>와 같다. 직업은 사무직이 44.9%로 가장 많았으며, 관리직 및 전문직이 31.5%를 차지하는데 사무직종사자가 가장 많은 것은 30대 대상자(40.9%)가 가장 많았던 것과 관련있는 것으로 보인다. 노후의 생활에 대한 부양책임이 본인에게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333명(75%)으로 많았으며, 자신의 노후부양에 대하여 국가나 사회가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는 25%에 불과했다.

은퇴이후의 생활에 대한 계획유형은 조사자의 절반 이상이 은퇴이후의 생활에 대하여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은퇴이후의 생활에 대하여 걱정은 하지만 계획을 세우지 않은 집단이 206명(46.4%)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걱정이 되어 계획을 세우고 있는 집단이 131명

(29.5%), 걱정은 없으나 계획을 세우고 있는 집단이 59명(13.3%), 걱정도 없고 계획도 안된 집단은 48명(10.8%)으로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연령은 42.6세였으며, 30대(40.9%), 40대(36.0%), 50대(22.7%)였으며, 이는 최근 직장인의 조기 퇴직현상을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교육년수는 평균 15.69년으로 비교적 높은 교육수준을 보였다. 가계소득은 약 453만원이었으며, 이는 도시근로자 평균소득보다 높은 수준이지만 자신이 평가한 현재의

경제적 능력에 대한 평가에서는 5점 만점에 평균 2.78점으로 보통보다 약간 낮은 수준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신의 건강상태에 대한 평가에서는 평균 3.69점(5점 만점)으로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편이었으며, 자존감도 평균 3.13점으로 보통보다 약간 높은 자존감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자산에서 부채를 제외한 가계의 순자산은 약 4억원 정도이며, 직업만족도는 평균 3.32점으로 중간점인 3점을 약간 넘어 대체로 긍정적인 것으로 보인다. 긍정적 은퇴태도는 은퇴를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계기로 생각하거나 평소 원하던 일을 할 수 있는 즐거운 시간이 될 것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최고 5점 만점에 평균 3.2점으로 중간보다 약간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부정적 은퇴태도는 은퇴를 생각하면 뭔가 불안해지고, 은퇴를 가능한 한 최대한으로 연기하고 싶은 마음으로 최고 5점 만점에 평균 3.12점으로 중간보다 약간 높으나 긍정적 은퇴태도보다는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N=445)

범주형 변수	빈도	백분율(%)
직업 판매직·기술직·자유직	98	22.0
사무직	200	44.9
관리직·전문직	140	31.5
노후부양책임 본인에게 노후부양 책임	333	75.0
국가, 사회에 노후부양책임	111	25.0
은퇴계획유형		
은퇴후 생활 걱정 없고, 계획 없음	48	10.8
은퇴후 생활 걱정, 계획없음	206	46.4
은퇴후 생활 걱정 없으나, 계획 함	59	13.3
은퇴후 생활 걱정, 계획함	131	29.5
연속형 변수	평균	표준편차
연령	42.63	7.67
교육년수	15.69	2.08
가계총소득(만원)	453.40	213.52
현재경제적능력*	2.78	.80
건강상태*	3.69	.81
자존감*	3.13	.36
순자산(천만원)	40.40	52.10
직업만족도*	3.32	.79
긍정적 은퇴태도*	3.20	.93
부정적 은퇴태도*	3.12	.72

\* ; 5점 척도임

## 2. 은퇴후 경제생활예측, 경제계획, 노후대비저축액 실태

은퇴후 경제적 준비 실태를 경제생활에 대한 예측과 계획, 실천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표 3>과 같다. 은퇴후 경제생활예측으로 은퇴후 생활수준에 대한 전망은 2.78점으로 현재보다 조금 낮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은퇴후 예상소득은 월평균 243만원 정도, 예상노후자금은 평균 5억9천5백만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었다.

은퇴후 경제계획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가를 살펴본 결과, 전체적으로 2.28점으로 계획이 아주 부족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경제계획 중 부채감소계획은 평균 2.66점으로 가장 잘 계획하고 있으며, 이는 노년기의 안정된 경제

생활을 위해 부채는 큰 걱정거리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음으로는 상속이나 노후의 질병을 위한 병원비계획이 2.22점으로 어느 정도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효율적인 생활비 지출방법계획이 2.15점으로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다.

은퇴를 대비한 경제적 실천으로서 현재 노후대비저축액은 평균 42만원 정도였으며, 매달 투자하거나 저축하고 있는 액수가 노후준비로서 만족하고 있는 정도는 중간보다 약간 낮은 2.85점으로 노후를 위한 준비로서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경제생활예측, 경제계획, 노후대비저축액의 실태 (N=445)

은퇴후 경제생활 예측	평균	표준편차
은퇴후 생활전망*	2.78	.73
은퇴후 예상소득	242.8	151.47
예상노후자금(천만)	59.51	45.00
은퇴후 경제계획	평균	표준편차
은퇴후 소득확보*	2.19	.921
생활비 지출*	2.15	.877
자산보유·증식*	2.19	.934
부채 감소*	2.66	1.320
상속·병원비*	2.22	.967
전 체	2.28	.82
노후대비저축액	평균	표준편차
노후대비저축액(만원/월)	41.98	24.85
노후대비저축액에 대한 만족도*	2.85	.45

\* ; 5점 척도임

### 3. 은퇴계획유형과 경제적 준비 실태

남성 직장인의 은퇴계획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이며, 유형에 따라 은퇴후

경제적 준비에 차이가 있는가를 비교분석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은퇴계획유형에 따라 차이를 보이고 있는 배경변수들은 자존감, 현재 경제적 능력, 가계총소득, 순자산, 긍정적 은퇴태도, 부정적 은퇴태도 등으로 경제적인 변인의 차이가 많았으며, 연령, 교육년수, 건강상태, 직업, 직업만족도와 같은 사회인구학적 변인이나 직업적 변인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은퇴계획유형에 따른 경제적 준비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은퇴후 경제생활예측에서는 은퇴후 예상소득이나 예상노후자금은 유형간의 차이를 보이지 않으며, 은퇴후 생활전망에서만 차이를 보이고 있다. 또 은퇴 후 경제계획은 은퇴계획유형에 따라 뚜렷한 차이를 보이는데, 은퇴 후 생활걱정이 없으나 계획을 하는 집단과 걱정도 하고 계획도 하고 있는 집단에서 모든 항목의 경제계획을 월등히 많이 하고 있으며, 특히 걱정이 없지만 계획하고 있는 집단은 은퇴 후 소득확보계획을 가장 잘 하고 있었다. 반면 은퇴 후 걱정이 없고 계획도 하지 않는 집단과 걱정은 하나 계획을 하지 않는 집단, 즉 은퇴계획이 없는 집단의 경우 모든 은퇴 후 경제계획에서 낮은 수준을 보였다. 한편, 은퇴대비실천으로 노후대비저축액은 은퇴계획유형간 유의적인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은퇴계획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은퇴계획유형에 따른 은퇴 후 경제적 준비의 실태를 중심으로 은퇴계획유형별 특성을 비교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 1) 은퇴후 생활에 대한 걱정없고 계획없는 유형

자존감, 현재 경제적 능력, 가계총소득이 중간정도이고, 순자산은 가장 적고, 은퇴태도는 부정적 경향이 조금 강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은퇴후 생활전망은 평균 3.05점으로 현재와 거의 비슷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전체적인 은퇴후 경제계획수준이 가장 낮고, 특히 소득확보계획수준이 네 유형 중 가장 낮다. 노후대비저축액도 매월 평균 32만원으로 가장 낮은 수준이다. 전반적으로 볼 때 은퇴이후를 대비하여 계획수준도 가장 낮고, 실천수준도 가장 낮아 노후생활대비를 위한 적절한 교육이나 상담이 필요한 집단이다.

### 2) 은퇴후 생활에 대한 걱정하나 계획없는 유형

자존감이 가장 낮고, 현재 경제적능력, 가계총소득, 순자산 등 경제적 수준이 가장 낮다. 긍정적 은퇴태도는 가장 낮으며, 부정적 은퇴태도를 가지고 있는 집단으로 은퇴를 두려워하고 미루기를 희망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은퇴후 생활전망이 평균 2.59점으로 네 유형 중 가장 낮아 현재보다 나빠질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은퇴후 예상소득과 예상노후자금이 가장 낮은 경향을 띠고 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은퇴후 경제계획수준이 낮은 편이며, 노후대비저축액도 매월 평균 38만원 정도로 낮은 편이다. 이 유형의 특징은 현재 경제적 수준이 가장 낮은 집단으로 노후에 대한 걱정은 하지만 실제적으로 노후계획을 세우지 않고 막연한 걱정만 하고 있는 집단이므로 이들이 노후생활대비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내 교육이 실시되거나 금융기관에서 재무관리 포트폴리오 구성 서비스나 금융상품 등이 제안할 필요가 있다.

### 3) 은퇴후 생활에 대한 걱정없으나 계획하는 유형

자존감이 가장 높고, 현재 경제적능력, 가계총소득, 순자산 등 경제적 수준이 가장 높

고, 긍정적 은퇴태도는 가장 높으며, 부정적 은퇴태도는 가장 낮은 집단으로 은퇴를 자신이 하고 싶었던 일들을 할 수 있는 새로운 인생의 전환기가 될 것이라 기대하고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은퇴후 생활전망은 평균 3.05점으로 현재와 거의 비슷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은퇴후 예상소득과 예상노후자금이 가장 높은 경향을 띠고 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은퇴후 경제계획 수준은 모든 영역에서 다른 집단에 비해 월등히 높아 경제적 계획을 잘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4) 은퇴후 생활에 대해 걱정하여 계획하는 유형

자존감, 현재 경제적 능력, 가계총소득, 순자산 등 경제적 수준이 중간정도이고, 은퇴태도는 긍정적 경향이 조금 강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은퇴후 생활전망은 평균 2.91점으로 현재보다 약간 나빠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은퇴후 경제계획수준이 전반적으로 높은 편이며, 노후대비저축액은 평균 46만원으로 가장 노후대비실천을 많이 하는 경향을 보이나 통계적으로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은퇴계획유형과 경제적 준비의 관계를 살펴보면 자산과 소득이 많은 집단은 노후에 대하여 미리 준비하고 있으나 자산과 소득수준이 낮은 집단은 노후의 생활에 대한 계획이 없다는 것이 문제점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은퇴후 생활에 대해 걱정하지만 계획이 없는 유형은 현재 경제적 수준이 가장 낮은 집단으로, 노후에 대한 걱정은 하지만 현재 소득과 자산이 충분하지 못하므로 노후대비 계획과 실천을 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

### 4. 은퇴후 경제생활 예측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조사대상자의 은퇴후 경제생활예측에 영향

(표 4) 은퇴계획유형에 따른 관련변인들의 차이 비교분석 (N=445)

은퇴계획 유형	은퇴후 생활 걱정 없고, 계획없음 (N=48)	은퇴후 생활 걱정, 계획없음 (N=206)	은퇴후 생활 걱정 없으나, 계획함 (N=59)	은퇴후 생활 걱정, 계획함 (N=131)	F값
배경변인					
연령	41.35	42.65	42.98	42	.517
교육수준	8.83	9.00	8.84	8.74	.703
건강상태*	3.77	3.58	3.78	3.78	2.536
자존감*	9.13 A	9.11 A	9.88 B	9.17 A	2.617*
현재 경제적 능력*	2.85 AB	2.64 A	3.02 B	2.88 AB	4.898**
가계총소득(만원/월)	431.04 A	424.07 A	520.76 B	479.39 AB	4.163**
순자산(천만원)	32.781 A	34.152 A	60.517 B	44.235 A	4.603**
직업만족도*	16.23	16.62	17.12	17.11	1.335
긍정적 은퇴태도*	9.383 A	9.221 A	10.448 B	9.893 AB	6.118***
부정적 은퇴태도*	6.340 B	6.647 B	5.500 A	6.223 B	6.712***
은퇴후 경제생활예측					
은퇴후 생활전망*	3.05 B	2.59 A	3.05 B	2.91 B	10.352***
은퇴후 예상소득(만원/월)	259.79	220.00	267.59	261.50	2.924*
예상노후자금(천만원)	51.21	56.88	65.19	64.14	1.560
은퇴이후 경제계획					
은퇴후 소득확보계획*	1.81 A	1.87 A	2.85 C	2.54 B	32.869***
생활비 지출계획*	1.70 A	1.90 A	2.54 B	2.51 B	24.021***
자산보유·증식계획*	1.79 A	1.91 A	2.68 B	2.56 B	25.085***
부채감소계획*	2.21 A	2.36 A	3.25 B	3.06 B	14.406***
상속·병원비계획*	1.79 A	1.98 A	2.69 B	2.54 B	18.101***
전 체	1.863 A	2.005 A	2.798 B	2.645 B	36.002***
은퇴대비실천					
노후대비저축·투자(만원/월)	32.167	38.128	45.067	46.211	.897

\*p<.05 \*\*p<.01 \*\*\*p<.001

\* ; 5점 척도임

을 미치는 요인들의 상대적인 영향력을 파악하기 위해 은퇴후 생활전망, 은퇴후 예상소득, 예상노후자금을 각각 종속변인으로 하고, 조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경제적 특성, 직업특성을 독립변인으로 하는 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은퇴후 생활전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로는 긍정적 은퇴태도가 가장 큰 영향력( $\beta=.251$ )을 보였으며,

다음으로는 연령( $\beta=-.243$ ), 순자산( $\beta=.166$ ), 은퇴유형(걱정 O, 계획 O)( $\beta=.157$ ), 은퇴유형(걱정 x, 계획 O)( $\beta=.119$ ), 교육수준( $\beta=-.112$ ), 부정적 은퇴태도( $\beta=-.110$ ), 은퇴유형(걱정 O, 계획 x)( $\beta=.099$ ), 노후부양의식( $\beta=.088$ ) 등이 영향력을 보였으며, 이들 9개 변수들의 설명력은 21.3%였다. 즉 은퇴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일수록 은퇴후 생활을 밝게 전

망하고 있으며, 순자산이 많을수록, 노후부양의 책임이 본인에게 있다고 생각하는 집단이 은퇴후 생활이 현재보다 나아질 것으로 생각했다. 연령과 교육수준, 부정적 은퇴태도는 은퇴후 생활전망에 부적 영향을 미쳐 연령이 많을수록,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부정적인 은퇴태도를 가질수록 은퇴후 생활을 낮게 전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은퇴계획유형 중 은퇴후 생활에 대한 걱정이 있으나 계획을 세우지 못하고 있는 집단과 비교할 때 모든 집단이 은퇴후 생활을 밝게 전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표 4>의 집단간

차이에서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다.

은퇴후 예상가계소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로는 현재의 가계총소득이 가장 큰 영향력( $\beta=.283$ )을 보였으며, 다음으로는 연령( $\beta=-.223$ ), 순자산( $\beta=.181$ ), 현재 경제능력( $\beta=.124$ ), 노후부양의식( $\beta=.104$ ) 등이 영향력을 보였으며, 이들 5개 변수들의 설명력은 26.3%였다. 즉 현재 가계소득이 많을수록 경제적 능력이 좋을수록 은퇴후 예상소득이 많았으며, 노후부양의 책임이 본인에게 있다고 생각하는 집단이 예상가계소득이 많았다. 연령은 예상가계소득에 부적 영향을 보여 연령이 많

<표 5> 은퇴후 경제생활 예측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중회귀분석 (N=445)

독립변인	종속변인		은퇴후 생활전망		은퇴후 예상소득		예상노후자금	
	b	$\beta$	b	$\beta$	b	$\beta$	b	$\beta$
연령	-.023***	-.246	-4.465***	-.223	-.720*	-.131		
교육년수	-.049*	-.112	-2.449	-.026	2.717*	.104		
건강상태*	.000	.040	-8.078	-.044	1.446	.028		
자존감*	.026	.068	1.591	.020	2.510*	.112		
노후부양의식(본인책임)	.144*	.088	36.633*	.104	8.160	.011		
은퇴유형(걱정 O 계획 X)								
걱정 X 계획 X	.233*	.099	25.265	.050	-7.660	-.055		
걱정 X 계획 O	.247*	.119	-9.971	-.022	-8.949	-.073		
걱정 O 계획 O	.241**	.157	21.518	.065	5.222	.057		
현재 경제적 능력*	-.007	-.007	24.682*	.124	-3.312	-.062		
가계총소득(log값)	-.075	-.046	102.047***	.283	21.221***	.218		
순자산(log값)	.119**	.166	27.998**	.181	11.707***	.277		
직업(사무직)	-.036	-.025	-9.755	-.032	-.149	-.002		
직업(관리직, 전문직)	.063	.042	11.887	.037	-3.389	-.038		
직업만족도*	-.014	-.060	-.077	-.002	.084	.006		
긍정적 은퇴태도*	.082***	.251	11.240***	.158	.205	.011		
부정적 은퇴태도*	-.044**	-.110	-2.595	-.029	-.657	-.027		
상수								
		3.984***		-430.591***		-78.397		
R <sup>2</sup> (Adj-R <sup>2</sup> )		.244(.213)		.293(.263)		.213(.181)		
F값		7.844***		9.877***		6.589***		

\*p<.05 \*\*p<.01 \*\*\*p<.001

\* ; 5점 척도임

을수록 예상가계소득이 적었다. 전반적으로 가계소득과 자산, 현재 경제적 능력 등 경제적 변수가 영향요인으로 확인되었으며, 은퇴 계획유형은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은퇴후 예상노후자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로는 순자산이 가장 큰 영향력( $\beta=.277$ )을 보였으며, 다음으로는 가계총소득( $\beta=.218$ )이 영향을 미쳐 순자산이 많을수록 가계총소득이 많을수록 은퇴후 필요한 예상노후자금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현재 경제적으로 여유있는 생활을 은퇴이후에도 유지하기 위해서는 노후자금이 더 많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다음으로는 연령( $\beta=-.131$ ), 자존감( $\beta=.112$ ), 교육수준( $\beta=.104$ ) 등이 영향력을 보였으며, 이들 5개 변수들의 설명력은 18.1%였다. 연령은 노후자금에 부적 영향을 보여 연령이 많을수록 예상노후자금이 적었으며, 자존감이 높을수록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예상노후자금이 많았다. 노후부양의식과 은퇴계획유형은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상노후자금의 주요 영향요인은 가계소득과 자산, 연령 등으로 나타남으로써 예상가계소득의 영향요인과 유사한 경향을 보인다.

경제적 준비 중 많은 세부영역에서 연령은 부적 영향을 미쳤는데, 이는 이지은(2000)의 연구에서 연령이 노후 경제생활계획 여부에 부적 영향을 미치며 40대가 50대보다 더 경제생활계획을 할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와 유사한 경향을 보이는 것이다.

#### 5. 은퇴후 경제계획의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은퇴후 경제계획의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상대적인 영향력을 파악하기 위해 은퇴후 소득확보, 생활비 지출, 자산보유·증

식, 부채감소, 상속·병원비 등을 각각 종속변인으로 하고, 조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경제적 특성, 직업특성을 독립변인으로 하는 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6>과 같다.

은퇴후 소득확보 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로는 은퇴유형(걱정 x, 계획 O)( $\beta=.255$ ), 은퇴유형(걱정 O, 계획 O)( $\beta=.227$ ), 현재 경제적능력( $\beta=.221$ ), 교육수준( $\beta=-.135$ ), 긍정적 은퇴태도( $\beta=.128$ ), 직업만족도( $\beta=.096$ )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6개 변수들의 설명력은 29.6%였다. 은퇴후 생활에 대하여 걱정은 없지만 계획을 세우고 있는 집단이 은퇴후에 대해 걱정은 하나 계획이 없는 집단에 비해 은퇴후 소득확보에 대한 계획수준이 높았으며, 다음으로는 걱정을 하고 노후 계획을 세우고 있는 집단의 소득확보계획수준이 높았다. 현재 경제적 능력을 높게 평가할수록, 은퇴에 대하여 긍정적인 생각을 가진 집단일수록, 현재 직업에 대한 만족수준이 높을수록 은퇴후 소득확보 계획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만족도의 정적 영향력은 이승아(1998)의 연구에서 중년기 직장남성의 퇴직 후 생활계획에 직업만족도가 가장 큰 영향력을 보였던 결과와 유사한 경향으로 볼 수 있다. 반면 교육수준은 은퇴후 소득확보 계획에 부적 영향을 보여 교육을 많이 받을수록 은퇴후 소득확보 계획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은퇴후 생활비지출 계획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로는 은퇴유형(걱정 O, 계획 O)( $\beta=.238$ ), 은퇴유형(걱정 x, 계획 O)( $\beta=.194$ ), 연령( $\beta=.165$ ), 현재 경제적능력( $\beta=.148$ ), 긍정적 은퇴태도( $\beta=.130$ ), 은퇴유형(걱정 x, 계획 x)( $\beta=-.111$ ), 노후부양의식( $\beta=.097$ ), 건강상태( $\beta=.095$ )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8개 변수들의 설명력은 23.4%였



다. 노후에 대하여 걱정을 하고 노후계획을 세우고 있는 집단과 걱정은 없지만 계획을 세우고 있는 집단이 걱정은 하나 계획이 없는 집단과 비교할 때 생활비지출 계획수준이 높았으며, 연령이 많을수록, 현재 경제적 능력을 높게 평가할수록, 은퇴에 대하여 긍정적인 생각을 가진 집단일수록, 노후를 본인이 책임져야 한다는 의식을 가진 집단일수록, 건강상태가 양호할수록 은퇴후 생활비지출 계획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상태의 정적 영향은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노후 경제생활에 대한 준비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난 김정석(2001)의 연구결과와 유사한 경향이다. 반면 은퇴유형중 걱정도 않고 계획도 없는 집단은 생활비지출 계획에 부적 영향을 보여 계획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산보유·증식 계획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로는 은퇴유형(걱정 O, 계획 O)( $\beta = .238$ ), 현재 경제적능력( $\beta = .225$ ), 은퇴유형(걱정 x, 계획 O)( $\beta = .198$ ), 순자산( $\beta = .144$ ), 긍정적 은퇴태도( $\beta = .123$ ), 노후부양의식( $\beta = .092$ ), 은퇴유형(걱정 x, 계획 x)( $\beta = -.087$ )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7개 변수들의 설명력은 28.3%였다. 노후에 대하여 계획을 세우고 있는 집단이 걱정은 하나 계획이 없는 집단과 비교할 때 자산보유·증식 계획수준이 높았다. 현재 경제적 능력을 높게 평가할수록, 순자산이 많을수록, 은퇴에 대하여 긍정적인 생각을 가진 집단일수록, 노후를 본인이 책임져야 한다는 의식을 가진 집단일수록 자산보유·증식 계획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김정석(2001)의 연구 결과 노후부양주체로서 자신의 책임을 강조한 집단에서 노후 경제적 준비정도가 높게 나타난 것과 유사한 경향을 보이는 것이다. 반면 은퇴유형중 걱정도 않고 계획도 없는 집단은 자산보유·증식에 대한 계획에 부적 영향을 보여 계획수

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채감소 계획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로는 순자산( $\beta = .190$ )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부채를 제외한 순자산이 많을수록 부채감소 계획수준이 높았다. 다음으로는 은퇴유형(걱정 O, 계획 O)( $\beta = .163$ ), 은퇴유형(걱정 x, 계획 O)( $\beta = .155$ ), 연령( $\beta = .133$ ), 긍정적 은퇴태도( $\beta = .131$ ), 노후부양의식( $\beta = .122$ )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6개 변수들의 설명력은 20.1%였다. 노후에 대하여 걱정을 하고 계획을 세우고 있는 집단과 걱정은 없지만 계획을 세우고 있는 집단이 걱정은 하나 계획이 없는 집단과 비교할 때 부채감소 계획수준이 높았으며, 연령이 많을수록, 긍정적 은퇴태도를 가진 집단일수록, 노후를 본인이 책임져야 한다는 의식을 가진 집단일수록 은퇴후 부채감소 계획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은퇴후 상속·병원비 계획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로는 은퇴유형(걱정 O, 계획 O)( $\beta = .201$ ), 은퇴유형(걱정 x, 계획 O)( $\beta = .188$ ), 노후부양의식( $\beta = .166$ ), 교육수준( $\beta = -.133$ ), 긍정적 은퇴태도( $\beta = .133$ )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5개 변수들의 설명력은 19.8%였다. 노후에 대하여 걱정을 하고 계획을 세우고 있는 집단과 걱정은 없지만 계획을 세우고 있는 집단이 걱정은 하나 계획이 없는 집단과 비교할 때 상속·병원비 계획수준이 높았으며, 노후를 본인이 책임져야 한다는 의식을 가진 집단일수록, 은퇴에 대하여 긍정적인 생각을 가진 집단일수록 상속·병원비 계획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교육수준은 상속·병원비 계획수준에 부적 영향을 미쳐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계획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인 노후의 경제계획수준이 낮은 집단은 노후에 대하여 걱정도 하지 않고 계획도

(표 6) 은퇴후 경제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중회귀분석 (N=445)

배경변인	종속변인		은퇴후 소득확보계획		생활비 지출계획		자산보유· 증식계획		부채감소계획		상속· 병원비계획	
	b	$\beta$	b	$\beta$	b	$\beta$	b	$\beta$	b	$\beta$	b	$\beta$
연령	.009	.073	.019**	.165	.009	.077	.023**	.133	.009	.076		
교육년수	-.077**	-.135	-.034	-.061	-.035	-.060	-.071	-.086	-.080**	-.133		
건강상태*	.082	.074	.102*	.095	.084	.075	.097	.060	-.020	-.017		
자존감*	.011	.022	.015	.032	.004	.009	.048	.067	.030	.058		
노후부양의식(본인책임)	.105	.050	-.197*	-.097	.198	.092	.372**	.122	.369***	.166		
은퇴유형(걱정 O 계획 X)												
걱정 X 계획 X	-.092	-.030	-.329*	-.111	-.270	-.087	-.203	-.046	-.273	-.087		
걱정 X 계획 O	.680***	.255	.497***	.194	.538***	.198	.608**	.155	.522***	.188		
걱정 O 계획 O	.451***	.227	.455***	.238	.476***	.236	.471***	.163	.416***	.201		
현재 경제적 능력*	.259***	.221	.167**	.148	.268***	.225	.153	.090	.125	.102		
가계총소득(log값)	.145	.069	.144	.071	.063	.029	-.050	-.016	.080	.036		
순자산(log값)	.080	.087	.011	.012	.135**	.144	.255**	.190	.075	.079		
직업(사무직)	-.057	-.031	-.065	-.037	.050	.027	.170	.064	.105	.055		
직업(관리직, 전문직)	-.046	-.024	-.158	-.085	-.205	-.105	-.174	-.062	.020	.010		
직업만족도*	.029*	.096	.011	.038	.008	.025	.014	.032	.017	.053		
긍정적 은퇴태도*	.054**	.128	.053**	.130	.053**	.123	.080**	.131	.059**	.133		
부정적 은퇴태도*	.020	.039	-.001	-.001	.010	.019	-.014	-.018	.033	.061		
상수	-1.150		-1.184		-.820		-.007		.230			
R <sup>2</sup> (Adj-R <sup>2</sup> )	.324(.296)		.264(.234)		.311(.283)		.233(.201)		.231(.198)			
F값	11.626***		8.685***		10.990***		7.279***		7.046***			

\*p<.05 \*\*p<.01 \*\*\*p<.001

\* : 5점 척도임

세우지 않고 있는 무관심한 집단과 노후부양 책임이 국가나 사회에 있다고 생각하는 집단 이므로 이들에게 노후부양책임에 대한 의식교육과 노후생활에 대한 계획의 필요성을 젊은 이들에게 알릴 수 있도록 계몽하는 교육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 6. 노후대비저축액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남성 직장인의 노후대비저축액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상대적인 영향력을 파악하기

위해 노후대비저축액을 종속변인으로 하고, 조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경제적 특성, 직업특성을 독립변인으로 하는 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7>과 같다.

노후대비저축액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는 가계총소득만이 영향력( $\beta=.524$ )을 보였으며, 설명력은 24.4%였다. 월평균 가계총소득 이 많은 집단일수록 노후를 대비한 저축이나 투자를 더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소득이 노후대비저축액에 영향을 미치는 결과는 많은 선행연구(신하연, 1997; 이지은,

2000; 김정석, 2001; 배문조 등, 2004)에서 소득이 노후 경제적 준비수준에 정적 영향을 미쳤던 결과를 뒷받침하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현재 소득은 노후를 위한 경제적 준비와 실천의 토대가 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노후 경제생활 예측이나 경제계획수준은 다양한 배경변인들에 의해 차이를 보였던 것에 비해 노후대비를 위한 실질적인 실천으로서 노후대비저축을 위해서는 가계총소득이 가장 중요한 조건이라는 현실을 보여주는 것이다. 상대적으로 노후의 경제적 준비가 더 절

실한 것으로 판단되는 낮은 소득계층에 대하여 노후대비의 필요성을 인식시키고 현실적인 대비를 할 수 있도록 적절한 교육프로그램이 요구된다.

### V.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남성 직장인을 대상으로 은퇴 후의 생활문제에 대한 인지여부와 계획여부를 중심으로 은퇴계획을 유형화하고 각 유형에 따라 은퇴 후 경제생활에 대한 예상과 계획, 준비 실태를 파악해 보고자 하였다. 특히 은퇴 후 경제적 준비가 이루어지는 과정을 세부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은퇴 후 경제적 수준에 대해 어떻게 예상과 전망을 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소득과 지출, 부채 및 자산관리, 상속 등에 대해 어느 정도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실제로 어느 정도 실천에 옮기고 있는가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고자 하였다.

연구의 주요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대상자들은 은퇴 후 생활이 현재보다 조금 낮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은퇴후 예상소득은 월평균 243만원 정도였으며, 예상노후자금은 평균 5억9천5백만원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은퇴 후 경제계획은 전체적으로 계획수준이 아주 낮으며, 경제계획 중에서는 가계의 부채감소계획 수준이 가장 높고, 효율적인 생활비 지출방법계획이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다. 노후대비저축액은 월평균 42만원 정도였으며, 저축액수가 노후준비로서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은퇴계획유형에 따라 경제적 준비 실태를 살펴보면, 자산과 소득이 많은 집단은 노후에 대하여 미리 계획하고 있으나 자산과 소득수준이 낮은 집단은 노후생활에 대한 계획이 없는 문제점이 나타난다. 특히 은퇴 후 생활에 대해 걱정은 하지만 계획이 없는 유형

〈표 7〉 노후대비저축액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중회귀분석 (N=445)

배경변인	노후대비저축액	
	b	$\beta$
연령	-.146	-.042
교육년수	-.997	-.059
건강상태*	1.382	.049
자존감*	-.007	-.001
노후부양 의식(본인책임)	2.172	.034
은퇴유형(걱정 O 계획 X)		
걱정 X 계획 X	-1.722	-.007
걱정 X 계획 O	1.511	.235
걱정 O 계획 O	.824	.175
현재 경제적 능력*	-1.060	-.036
가계총소득(log값)	34.946***	.524
순자산(log값)	3.478	.143
직업(사무직)	-.237	-.005
직업(관리직, 전문직)	1.867	.034
직업만족도*	.384	.050
긍정적 은퇴태도*	.569	.050
부정적 은퇴태도*	-.092	-.007
상수	-184.041***	
R <sup>2</sup> (Adj-R <sup>2</sup> )	.350(.244)	
F값	3.300***	

\*p<.05 \*\*p<.01 \*\*\*p<.001

\* ; 5점 척도임

은 자존감, 현재 경제적 능력, 가계총소득, 순자산 등 경제적 수준이 가장 낮고, 은퇴태도는 부정적 경향이 높은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들에 대한 노후생활대비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적절한 교육이나 상담이 필요할 것이다.

셋째, 은퇴 후 생활전망은 긍정적 은퇴태도, 은퇴후 예상가계소득은 현재의 가계총소득, 예상노후자금은 순자산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은퇴계획유형, 노후부양의식, 긍정적 은퇴태도 등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볼 때 현재 소득과 자산은 노후를 위한 경제적 준비와 실천의 토대가 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넷째, 은퇴후 경제계획수준은 개인적 특성이나 직업특성, 경제적 특성 및 은퇴계획유형, 노후부양의식 등 다양한 변수들에 의해 설명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특히 긍정적 은퇴태도는 모든 경제계획영역에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됨으로써 은퇴 준비나 계획에 앞서 은퇴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갖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이 시사된다.

전반적인 노후의 경제계획수준이 낮은 집단은 노후에 대하여 걱정도 하지 않고 계획도 세우지 않고 있는 무관심한 집단과 노후부양책임이 국가나 사회에 있다고 생각하는 집단이므로 이들에게 노후부양책임에 대한 의식교육과 노후생활에 대한 계획의 필요성을 노인이 되기 전에 알 수 있도록 계몽하는 교육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의 특징적인 결과를 중심으로 결론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은퇴계획유형의 특성을 살펴보면 네 가지 유형 중 배경변수에 따른 차이가 가장 두드러진 유형은 은퇴 후 생활에 대한 걱정이 없으나 은퇴계획을 세우고 있는 집단이다. 이들은 현재 경제적 능력, 가계총소득, 순자산, 직업만족도, 긍정적 은퇴태도 등에서 다른 집

단에 비해 월등히 높으며 부정적 은퇴태도는 가장 낮은 집단으로 현재의 객관적·주관적인 경제적 수준이 높고 직업에 대한 만족도가 높으며, 은퇴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특성을 보인다.

둘째, 은퇴계획유형 중 은퇴 후 생활에 대해 걱정은 하지만 계획이 없는 유형은 현재 경제적 능력, 가계총소득, 순자산 등 경제적 수준이 가장 낮은 특성을 가지고 있다. 즉, 현재의 경제적 자원이 불충분함으로 인해 미래를 위한 계획과 준비를 시도할 여유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현재 경제적으로 취약한 집단이 미래 소득을 준비하지 못함으로써 은퇴 후에도 경제적 취약성이 지속되거나 심각한 경제적 문제를 경험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이들이 은퇴계획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현재 경제적 상태에서 가능한 경제적 준비를 계획할 수 있도록 재무상태 진단과 상담이 지원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은퇴 후 경제계획은 개인의 배경변수보다 은퇴계획유형과 노후부양의식, 그리고 긍정적 은퇴태도에 의해 주로 설명되었다. 그러므로 은퇴 후 경제계획의 수준은 은퇴 및 노후생활과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요인에 따라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은퇴계획유형 중 은퇴 후에 대해 걱정은 없으나 계획을 세우고 있는 유형과 걱정도 하고 계획도 세우고 있는 유형, 즉 은퇴계획을 세우고 있는 집단은 은퇴 후 경제계획의 모든 영역에서 높은 계획수준을 보였다. 긍정적 은퇴태도 또한 은퇴 후 경제계획의 모든 영역에서 정적 영향을 미침으로써 직장인의 은퇴에 대한 주관적인 인식이 은퇴 후 생활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넷째, 노후대비저축액에는 가계총소득만이 영향을 미쳤던 결과를 통해 노후 경제생활에 대한 예상이나 경제계획의 단계와 달리 노후

를 대비한 실천과정인 노후대비저축은 가계총 소득이라는 현재의 경제적 상태와 직결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다. 직장인의 가계총 소득이 대부분 자신의 봉급으로 형성될 것으로 추측되는데, 현재 소득이 취약할수록 노후대비저축도 적게 함으로써 미래소득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경제적으로 취약한 집단에서 은퇴계획을 세우지 않았던 결과와 마찬가지로 이들의 경제적 취약성이 심화되지 않도록 개인적 준비와 정책적 배려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현재 소득과 자산은 노후를 위한 경제적 준비와 실천의 토대가 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은퇴이후 경제적 준비가 이루어지는 과정에 초점을 맞추어 봉급자 남성들의 은퇴계획유형에 따른 은퇴 후 경제생활 예상, 경제계획, 은퇴 후를 대비한 노후준비저축액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특히 은퇴계획과 관련하여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남성 직장인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경제적 특성, 직업특성과 부양에 대한 태도 등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그러나 은퇴와 관련된 노후보장 정책, 금융정책, 은퇴 준비 교육 및 상담 등 사회적 지원을 포함하는 보다 거시적인 차원의 사회환경적 특성에 대한 이해도 은퇴 후의 생활계획에 중요한 배경임을 감안 할 때 이와 같은 다양한 변수를 포함하여 그 영향을 검토하는 작업이 앞으로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 접수일 : 2007년 4월 16일
- 심사일 : 2007년 4월 24일
- 심사완료일 : 2007년 5월 07일

## 【참 고 문 헌】

- 1) 김미경(1992). 중년층의 노년 생활준비 계획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석사학위 청구 논문.
- 2) 김애순, 윤진(1995). 은퇴 이후의 심리·사회적 영향 -은퇴는 위기인가?-. 한국노년학 15(1), 141-158.
- 3) 김정석(2001). 노후부양주체로서의 노인. 가족, 사회/ 국가의 역할 : 중년층의 노후부양태도와 준비실태를 중심으로. 김두섭 편. 변화하는 노인의 삶과 노인복지. 한양대학교 출판부.
- 4) 동아일보(2007) 4. 9
- 5) 문숙재 외(1996). 노인가계와 비노인가계의 재정상태 비교분석.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4(3), 223-236.
- 6) 박경숙(2003). 고령화 사회 이미 진행된 미래. 의암출판.
- 7) 박신영(2007). 고령자주거지원 중장기 계획안. 고령자 주거지원 중장기 계획 마련을 위한 공청회 자료집, 47-111. 대한주택공사 주택도시연구원.
- 8) 배문조, 전귀연(2004). 은퇴에 대한 태도 및 은퇴준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대한가정학회지 42(7), 89-102.
- 9) 이기영 외(1995). 서울시 아파트 거주 중년기가정의 생활실태와 문제(2) : 경제생활을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33(5), 115-127.
- 10) 서병숙(1996). 노인연구. 서울 : 교문사.
- 11) 신하연(1997). 중년기 소비자들의 경제적 노후대비수준과 실버타운에 대한 요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청구 논문.
- 12) 이승아(1998). 중년기 직장남성의 퇴직에 대한 태도와 퇴직 후 생활계획.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청구 논문.
- 13) 이정숙, 이인수(2005). 노년기 건강관리행

- 동과 사회경제요인이 건강상태에 미치는 영향. 노인복지연구 27, 231-253.
- 14) 이지은(2000). 중년기 직장남성의 노후생활계획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15) 임장순(1990). 한국인의 노후생활대책에 관한 의식 연구. 건국대학교 석사학위 청구 논문.
  - 16) 전길양, 송현애, 고선주, 김일명(2000). 노년기 준비교육 프로그램 -풍요로운 노후가꾸기-. 한국노년학 20(1), 69-91.
  - 17) 정경희(2000). 우리나라 노인의 생활실태 및 복지 욕구. 노인복지현황과 실버케어전공. 경희대학교 유망 직종 실버케어전공 설명회 자료집, 19-49.
  - 18) 통계청(2005). 2004년 사회통계조사 주요결과. 통계청 보도자료.
  - 19) 홍성희 외(1998). 노년기 생활설계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중노년층의 노후생활계획을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36(10), 1-22.
  - 20) 홍성희(2000). 중노년기 여가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공공시설의 여가프로그램을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38(5), 121-136.
  - 21) 홍성희 외(2006). 중년기 남녀봉급생활자의 은퇴계획 비교분석 : 경제적 준비와 건강준비를 중심으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4(1), 193-207.
  - 22) Atchley, R.(1971). Retirement and leisure participation : continuity or crisis?. The Gerontologist 13(17).
  - 23) Barfield, R. & Morgan, J.(1978). Trends in Planned Early Retirement. Gerontology 11 Spring, 29-32.
  - 24) Boss, R., Aldwin, C. M., Levenson, M. R., & Workman-Daniels, K.(1991). How Stressful is Retirement? : Findings from the Normative Aging Study. Journal of Gerontology 46(1), 9-14.
  - 25) Evans, L. Ekerdt, D. J. & Bosse, R.(1985). Proximity to Retirement and Anticipatory Involvement : Findings from the Normative Aging Study. Journal of Gerontology 40(3), 368-374.
  - 26) George, L. K.(1980). Role Transitions in Later Life. Brooks Cole Publishing Company.
  - 27) Heumann, L. F., McCall, M. E., and Bodly, D. P.(2001). Empowering Frail Elderly People. London : Praeger.
  - 28) McPherson, B., & Guppy, N.(1979). Preretirement Life-Style and the Degree of Planning for Retirement. Journal of Gerontology 34, 254-263.
  - 29) Parens, H. S., J. & Gilbert, N.(1981). The Retirement Experience. Cambridge. MA : MIT Press.
  - 30) Watson, W. H. (1980). Stress and Old age. New Brunswick and London : Transaction Book.